

# 전북도 SW산업 돌파구 찾는다

###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문가 릴레이 포럼 개최 대학·기업·공무원 등 150여명 열띤 논의

전북도는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29일 전북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핀테크와 블록체인, 전북 SW산업 육성 전략' 주제로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지역산업분야 전문가 릴레이 포럼(3차)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는 ICT/SW분야 전문가를 초빙, 도내 대학, 혁신기관, 기업,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9월 20일 개최한 2차 전문가

릴레이 포럼의 후속으로 제4차 산업혁명 대응 핀테크, 블록체인, 가상화폐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전북 ICT/SW산업의 육성 전략 구상과 핀테크, 블록체인, 가상화폐 거래 등 미래 금융관련 신산업분야 사업 발굴, 기획했다.

또한 산·학·연·관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및 제4차 산업혁명 대응할 도민의 공감

대 확산을 위해서 기획했다.

(주)피노텍 유용환 대표의 '핀테크 산업의 현황과 미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핀테크 비즈니스와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 사례를 통한 국내 핀테크 산업의 현주소와 전망, 기업 경쟁력 확보 전략 등을 모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북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김순태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의 이해와 적용 전략'이라는 주제로 블록체인 기술의 개념과 적용 산업분야 및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국내 산업 적용 전략을 발표했다.

(주)하오문 하영섭 대표의 '가상화폐, 핀테크 비즈니스 사례와 전북의 기

회'라는 주제로 주요 가상화폐의 종류와 특징,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 사업모델, 도내 SW기업 입장에서 바라본 전라북도 SW산업의 육성 전략에 대해 발표가 진행됐다.

도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은 "전북 금융타운 조성과 연계한 핀테크 산업분야 적용점과 성장동력산업인 농생명·ICT 산업분야 블록체인 기술 적용사례를 통해 전북 ICT/SW산업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며 "오늘 포럼을 통해 전북 ICT/SW 신산업을 발굴하고 핀테크, 블록체인, 가상화폐 관련 산업을 선도하는 전라북도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도 산림정책 전국 '으뜸'

### 산림청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서 최우수기관 선정

전북도는 29일 산림청이 매년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실적을 평가 하는 '2017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산림청에서 각 시·도와 광역시를 대상으로 산림 행정의 통합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국가 주요산림정책, 국가 보조사업, 위임사무 등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전북도는 이번 평가를 위해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 육성과 임도조성·관리 및 산불예방, 산림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산사태 예방 등 산림재해방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도내 임산물 중 전국적으로 생산비율이 높고 단기간에 소득창출이 가능한 품목 7가지(고사리, 두릅, 호두, 도라지, 표고·복령버섯 등) 선정 집중육성, 중앙부처 정책건의(7건), 임산물 생산자 전문기술교육 강화, 목재산업 복합단지 조성, 자원순환 산림부산물 자원화 시범사업 등을 발굴했다.

2018년도 예산안 반영사업으로 호두, 표고버섯 등 '규모있는 작물생산단지 조성'에 국비 6억원, 복령버섯 가공·유통 거점 기능의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에 국비 3억원을 확보, '임산물 6차 산업화지원사업' 국비 15억원, 한옥 마을 한(韓) 과실수지원사업' 2억원, '풍경이 있는 농산촌 기꾸기' 4억원 등 사업발굴과 예산확보를 했다.

도 양정기 산림복지과장은 "이번 수상이 특화된 산림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도민을 위한 맞춤형 산림복지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산림과 인기가 함께 공존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산림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29일 도청 공연장에서 제12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해 도내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한 해를 마무리 하는 '2017 전북도 자원봉사자대회'를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도의회 김종철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김승환 교육감 등 내빈과 자율방범연합회 등 20여개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 자원봉사자 1500여명 한자리에

### 노고 격려 등 한 해 마무리

(사)전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기원)는 제12회 자원봉사자의 날(12월 5일)을 기념하여 도내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한 해를 마무리 하는 '2017 전북도 자원봉사자대회'를 29일 도청 공연장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장에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도의회 김종철 행정자치위원

장을 비롯한 도의원, 김승환 교육감 등 내빈과 자율방범연합회 등 20여개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 1,500여명이 참석했다.

도지사 시상은 '자원봉사왕' 개인 부문에서 봉사활동시간이 가장 많은 익산시 자원봉사센터 김성량(2,043시간), 가족부문에서 더군산타임즈 김용연 가족봉사단(1,045시간), 단체 부문에서 정읍시 자율방범연합회 (65,556시간)가 자원봉사 명예의 전

당에 이름을 올렸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 해 동안 지역 사회 곳곳에 따스한 손길로 자원봉사를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황의욱 이사는 "우리는 역사를 통해 미래를 연다. 지난날의 자원봉사자의 노고와 열정이 미래를 향한 밑거름이 되어 다시 한번 도약하는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KIST 전북분원장에 홍재민 박사 취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는 제5대 분원장 홍재민 박사(사진)의 취임식을 29일 17시에 KIST 전북분원에서 열었다.

홍재민 분원장은 1985년 서울대학교 공업화학과를 졸업, 1993년 연세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에서 박사후 과정을 마친후 1999년부터 KIST에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전기적 특성을 가지는 복합소재 분야를 주로 연구해 왔으며, 2007년에는 "세계최고성능의 휘어지는 트랜지스터"를 개발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홍재민 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2018년 설립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전라북도 및 완주군 등 지역과 더불어 발전하는 연구소 모델 제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KIST 전북분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북도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 핵심부품인 복합소재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160여명의 연구원들이 복합소재분야 원천기술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 세계 17개국 청소년들 태권도원서 캠프 진행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성태, 이하 재단)은 세계 17개국 1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해 태권도 수련과 체험 등을 통해 태권도정신과 우리나라 문화를 알아가는 '2017세계청소년태권도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재단은 지난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1주일간 태권도원과 서울특별시, 전주시 일원에서 2017세계청소년태권도캠프를 운영 중으로 대한민국을 비롯해 미국, 헝가리, 필리핀, 태국, 인도, 오만 등 17개국 100여명의 청소년이 캠프에 참가하고 있다.

캠프 1일차(27일) 태권도원 입소와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2일차(28일)에는 국립태권도박물관·전망대 견학과 함께 이종관 심판위원장(대한태권도협회)을 비롯한 8명의 강사들에 의해 태권도 품새수련을 진행했다.

태권도 기본동작 수련을 위해 도복을 처음 입은 Chloe Anya Lai(싱가포르, 16세)양은 "수련을 처음해



보지만 태권도는 예의와 존중의 운동인 것 같다"며 "태권도원에서의 캠프에 참가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다"고 했다.

캐나다 청소년을 인솔해 온 Philip Kempton Power(캐나다, 40세)씨는 "태권도원이 태권도성지"라고 듣고 왔는데 와서 보니 태권도 수련과 체험·투어가 가능한 훌륭한 시설이다"며 "한국을 다시 찾았다면, 태권도원에도 재방문 해보고 싶다"고 했다.

재단 김종현 사무총장은 "재단은 이번 캠프를 통해 국내외에 태권도원 홍보와 태권도 보급·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참가자들이 세계태권도성지 태권도원에서의 추억을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우호적인 지지층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